

피플_현대 미술가 손파 2017년 9월(382호)

2017.08.23. 13:56

<http://blog.naver.com/cu1985/221080315417>



어떤 작품들은 불현듯 서늘한 기운과 함께 보는 이의 머리털을 쭈뼛하게 세우고 한다. 이러한 작품들은 주로 시각적인 충격을 통해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작품에 대한 호 불호는 둘째 치더라도 이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는 충격만큼은 대개 비슷한 형태의 공포로 귀결된다.

최근 손파(50)가 선보이고 있는 침(鍼)을 활용한 조형 작업들도 이러한 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0.25mm 굵기의 뾰족한 침들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당장이라도 온몸을 찌를 듯한 바늘의 공포감이 엄습한다. 많게는 무려 300만 개의 침으로 만들어지는 그의 작품은 이처럼 가장 작은 형태의 공포들을 모아 강렬한 충격을 전달한다. 이로 인해 때로는 쭈뼛하게 선 머리털 그 자체를 마주한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상한 점도 있다. 그가 사용하는 '침'이란 소재는 본래 공포가 아닌 인간의 몸을 고치기 위한 도구다. 침의 외형은 공포로 다가오지만 그 너머에는 치유의 목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침의 역설처럼 그의 작품 속에도 공포와 치유를 향한 메시지가 동시에 담겨 있다. 또한 그것은 자연스럽게 공포의 극복이라는 지점과도 연결된다. 그의 작품이 소위 시각적 충격을 위한 현대미술로만 그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10년을 이어온 집중과 몰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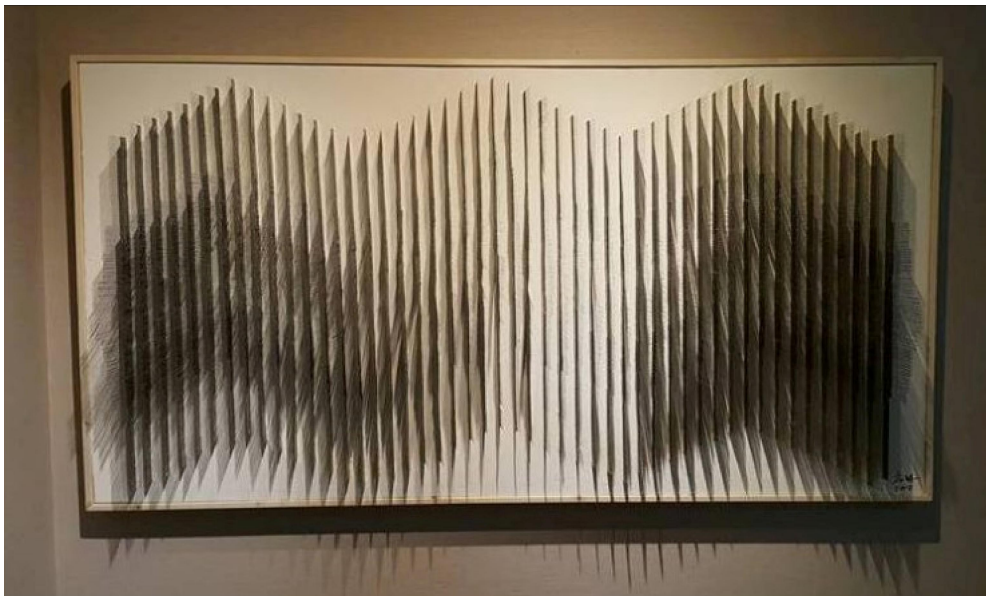
그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이러한 매력은 지난 5월부터 이탈리아에서 열리고 있는 제57회 베니스비엔날레 특별전 'Personal Structure'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 특별전에는 2009년부터 김아타, 이우환, 이이남 등의 한국 작가들이 차례로 초청되었으며, 오는 11월까지 열리는 올해 전시에는 김완, 심향, 손파, 이 렬게 총 3인의 한국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세 작가는 모두 대구와 경북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라는 점에서도 화제를 모았다. 이번 전시에서 손 씨는 '침'으로 만든 의자, 총탄, 치미(장식 기와)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0.25mm 굵기의 침을 하나하나 꽂아 만든 대형 입체 작품들이다.

"아무래도 유럽 관객들이 많다 보니 동양의 침이라는 재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은색의 가는 침만으로 표면을 새까맣게 채운 작품의 형태에도 놀라움을 표했죠. 그런 반응들은 사실 지난 10년간 이어온 제 작업 방식과도 아주 밀접한 지점이라고 봅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했으니, 그는 활동 10년 만에 베니스비엔날레 초청 작가로까지 이름을 알리게 된 흔치 않은 케이스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그에게 10 년이란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해 온 시간이기도 했다. 손으로 하나 하나 침을 꽂아 대형 작품을 만들 듯 그는 '집중'과 '몰입'으로 매일 매일을 보냈다고 한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작업실로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기까지 여러 가지 재료들의 물성을 탐구하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작품으로 형상화하는 데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뾰족하고 가는 침을 어떻게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고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늘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작업을 하다보면 정말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는 재료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속성들을 깨달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것은 곧 사물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런데 그가 선택해 온 재료들이 흥미롭다. 지금까지 침을 비롯해 식칼, 붓, 못 등과 같이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재료들을 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내가 가장 공포를 느끼는 재료들을 택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이러한 재료들에 대한 그의 탐구는 공포로 상징되는 그 자신의 어두운 내면을 마주하는 일이기도 했다. 작품으로부터 관객이 느끼는 공포를 누구보다도 가장 무섭게 느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작가 자신이었던 셈이다.



정신이 아닌 육체로부터 출발하는 문제들

"작업실에 침이 널려 있다 보니 어떨 때는 신발 속에 침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공포가 널려 있으면 도리어 공포를 느끼지 못 하게 되죠. 이처럼 작업을 통해 깨닫고, 또 극복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의 깨달음이나 극복을 정신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모든 공포 혹은 고통의 실질적인 근원과 해결은 육체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 작업이 노동을 통해 몰입하는 형태가 아니었다면 과연 침으로부터의 공포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침을 활용한 그의 작업이 소재 자체의 힘을 넘어서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통해 공포와 극복, 치유처럼 정신적인 면모에만 치우치기 쉬운 개념들을 육체적인 관점으로 되돌리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그가 침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동양적 이미지가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같은 정신적 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한다. 베니스비엔날레에 출품된 그의 작품이 눈길도 끈 닦아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다. 무엇보다 이러한 육체성의 의미는 다름 아닌 작가 자신이 작업적인 극복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바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의 탐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베니스비엔날레에 이어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갤러리 팔조에서 열린 그의 네 번째 개인전 'Solution to a question'에서 는 침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평면 작품들을 주로 선보인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입체 작품에서 느낄 수 있었던 빼곡한 형태의 침 작업 외에도 곡선으로 휘어진 장침과 검은색의 합성수지를 활용한 추상화 형태의 작품들을 전시했다.

"최근까지 입체 작업들을 주로 하다 보니 한쪽 구석에선 과거에 작업했던 추상화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솟구치곤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는 기존 입체 작업에서의 육체적인 집중이나 몰입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효과를 만나기도 하죠. 제 의도를 벗어난 우연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한편으로 이외에 '고무'를 이용한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이전에도 종종 선보였던 이 작업 역시 우연적이거나 자유로운 변형이 가능한 재질의 특성을 활용하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고무의 특성이 날카로운 '침'의 물성과는 상반 된다는 것인데, 들여다보면 이 또한 인간의 육체에 대한 그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고무는 침을 꽂을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육체 그 자체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그 속에는 소재가 주는 어떤 공포심이나 육체적인 한계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 작업 은 인간의 육체 혹은 제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강렬하게 마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작업으로 해결해 나가 려는 것입니다."

글·사진 | 이승욱